
2020년 제1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2.27. ~ 2020. 1. 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19. 12. 27.	시청률	0.023

【총 평】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출연해 올해 해수부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2019년의 해양수산부의 정책 성과와 새해 추진하게 될 정책 지표를 키워드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풀어냈다. 해양수산부 부처 특성이 국민 일반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와 수산물 소송 등의 이슈를 부각시켜 해양수산부의 부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해수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지표들을 국민 공통의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최일구의 정말은 전반부에 국민들의 여론조사 통계치를 준비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장치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

■ 해수부 장관 취임 소감과 성과

지난 4월 취임을 맡게 된 새내기 장관이지만 해양대 출신과 세계해사대학 출신이라는 이력을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장관으로서 느낀 점과 포부를 밝히고 그간의 주요 성과를 위주로 소개했다.

■ 해양수산 스마트화와 풍요로운 바다

해양산업의 각 분야별 스마트화 정책과 그로 인한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어촌의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었기 때문에 스마트화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점도 있다. 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정책도 꽤 비중 있게 소개가 되어 눈길을 끌었고 해양신산업 육성 전략도 5가지 분야가 짧지만 고루 언급이 되어 이해도를 높였다.

■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서의 재도약

해운산업의 침체를 지적하고 해운 재건 5개년 등의 계획을 주로 설명하면서 재도약의 시기를 예상했다. 해운산업의 침체에 대해 고비용 저효율 선박의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공감을 샀고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눈길을 끌었다.

■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해수오염과 항만 대기질 문제 등 해양 오염의 실태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 해양오염과 보호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강조하면서 협력국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유입, 항만 미세먼지, 해양안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신남방의 길		
방송일자	2019. 12. 27.	시청률	0.014

【총 평】

<KTV 특별기획 '신남방의 길, 대한민국 신남방의 문을 열다'>는 KTV가 연말특집 다큐멘터리로 국민방송의 정체성을 높인 수작이자 역작이었다. 신남방국가들의 현주소를 소개한 뒤 한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에 기술이전과 인재 양성 등의 도움을 주면서 상생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상을 조명한 것이 주목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연설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각된 신남방 정책의 필요성을 짚어 설득력을 높였다. 신남방을 이끌 주요 핵심은 “사람과 번영 그리고 평화”로 축약할 수 있는데, 현지화와 상생을 통한 문화 이해 속에서 경제 동반 성장을 위한 우리만의 전략과 거대소비 시장인 신남방 11개국과의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 KTV 성경환원장이 직접 내레이션을 맡은 점도 돋보였고, 힘있고 중후한 고품질 내레이션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신남방의 길-대한민국 신남방의 문을 열다' 1부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연설에서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상생 번영의 기회를 넓히고, 한반도와 아세안을 넘어 세계 평화에 함께 기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내세운 신남방 정책에 대한 현주소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2019년까지의 한국형 협력 모델 현지화를 모색해보았다.

신남방 정책의 주요 골자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강국 벨트를 만들어서 미·중·일·러 주변 4강의 무역전쟁에서 벗어난 거대 소비시장을 우리가 이끌고 있음을 잘 담아냈다. 또 한국과 아세안 간의 한국형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현장을 담았다. 발 빠른 일본의 아세안 시장 공략, 물량 공세의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협력 모델을 선택 했는지, 한류 이미지 속에서의 기술 이전, 인재 양성 등의 상생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신남방 지역의 공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신남방지역의 국가는 보통 베트남, 태국, 인도 등 11개 국가를 칭하는데 이들 국가는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한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덧 경제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아세안국가와 인도에 한국의 미래를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국 주변 4강의 무역, 정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의 파트너로서 신남방 국가들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의 상생의 문호를 열고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아세안 여러 나라의 도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류와 K-POP, 한글 배우기 붐, 한국화장품 등 우리 상품에 매료된 아세안 10 개국과 인도와의 두터운 교류로 아세안을 돕는 게 곧, 한국이 잘 사는 길이란 걸 실감하게 됐다.

프로그램	메디컬다큐 건강 더하기 행복		
방송일자	2019. 12. 29.	시청률	0.178

【총 평】

수많은 질환 가운데 난임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갈수록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신생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공감을 살만한 주제였고 무엇보다 요즘은 시험관 시술이 많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연의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본 시청자들도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 세 가지의 사례가 소개가 되었는데 연령대도 다양했고 상황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지루하지 않게 시청했다. 무엇보다 난임이라는 문제가 그리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역점을 두고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각 부부의 사연을 통해 난임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잘 강조해주었고 실제로 많은 의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부각되었다.

【구성 및 내용】

난임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 병원을 찾은 부부의 사례를 전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검사과정을 상세히 보여줘 오늘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한방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한 사례도 자세히 소개했는데 생체기능 중 약한 부분의 기능을 좋게 해 임신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치료의 효과를 적절히 담아내 이목을 끌었다. 특히, 난임 초반의 사례부터 현재 임신 7개월의 사례까지 경과별로 준비가 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 결혼한 지 2년이 된 30대 중반의 부부 이야기

결혼 2년째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게 된 부부의 이야기를 준비했다. 난임으로 걱정만 하고 실제로는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좋았다. 여러 가지 검사와 시험관 시술의 과정, 그리고 여성의 나이별 착상률 등이 언급 되어 난임 부부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을 것 같다.

■ 러시아 마라토너 부부

오랜 기간 난임으로 고생하다 우리나라의 난임 시술의 기술이 높아서 직접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부부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부각시키는 역할도 해주었다.

■ 한방 치료로 자연임신에 성공한 39세 여성

시험관 시술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방 치료로 자연임신을 하게 된 여성의 사연으로 원인 불 분명 난임 진단을 받아 한방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밝혀주어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공감을 많이 샀을 것 같다.

환자의 몸 상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흔히 여성의 몸이 차면 임신이 어렵다는 막연한 진단에 의학적인 설명을 덧붙여 아주 명쾌하게 풀이가 되었다. 특히 한방 난임 지원사업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경우라 정보성도 있었다.

프로그램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9. 12. 29.	시청률	0.046

【총 평】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은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나눔문화 확산 정책에 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및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비롯해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면 기부금이 추가 되는 기부계단 등 대한민국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나눔과 봉사활동에 대해 새로운 가치 부여와 그 영향력에 대해 되짚어 보고 깨닫게 해 주었다. 공동체와 공감얻는 나눔문화 확산정책이 지자체 곳곳에 잘 정착되어 가는 현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잘 담아냈다.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은 진로교육, 중장년 지원, 청년취업 정책을 비롯해 산업, 농업, 환경, 문화, 공공안전, 야시장, 마을공동체, 외국인관광유치 정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대한민국 정책을 소개하며 정책 알림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구성 및 내용】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대한민국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가능한 기부로 작은 실천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따뜻한 힘이 될 나눔을 소개했다. 특히, 봉사활동의 의미는 스스로 마음의 부자가 되는 보람과 뿌듯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전하는 소식은 공감을 주었다.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돌봄의 사랑은 사회의 안전망을 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항상 깨어 있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함을 새삼 느끼고 가치를 부여한 계기가 되었다.

■ 파주시 2020 희망 나눔 캠페인

경기도 파주시 금촌역의 ‘멜로디 나눔 기부 계단’은 계단을 이용할 시 개인건강 증진과 기부금이 생기는 기부계단이다. 개인건강과 기부금을 모으는 일석이조의 나눔정책으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하여 건강도 쌓고 100원씩의 기부금이 쌓이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 반디 나눔 교육 현장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나눔 교육은 참가자, 특히 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나눔이라고 생각하여 반디 나눔 교육을 진행한다. 청소년들 스스로 나눔에 대해 고민하고 물품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 수익금을 보육원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보여준다.

■ 영국의 나눔문화

영국은 생활 속 기부문화가 탄탄하게 자리잡은 나라이다. 채리티 숍이라고 불리는 나눔을 위한 가게는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일종의 중고물품 판매숍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인도나 아프리카의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프로그램	KTV 뉴스중심		
방송일자	2019. 12. 31.	시청률	0.016

【총 평】

오늘 뉴스는 특별사면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룬 만큼 세세한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좋았고 국회에 묶여 있는 여러 법안들의 현재 진행상황을 전달한 리포트도 시사성이 있어 기억에 남았다.

특히, 측우기 국보 지정에 관한 리포트도 여러 자료를 준비해서 성의 있게 전달한 것이 눈에 띄고 문화도시, 달라지는 병역법에 대한 리포트도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전달해준 것이 이해하기에 좋았다.

<KTV 뉴스중심>의 30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느낌도 없이 전체적으로 시청할 때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구성 및 내용】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자체가 통합 집행
내년 예산집행안의 주요내용이 항목별로 소개가 잘 되어 정보성이 있었고 국가의 예산 방향이 어느 쪽인데 충분히 드러나도록 편집을 잘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5천174명 신년 특별사면
일반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배려 수용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 및 선거사범 등 총 5천17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소개했다.
- 靑 "국민 대통합 사면...정치사범 제한적"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성격이 크다며, 9년 만에 이뤄진 정치사범의 사면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 "취약계층 지원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취약계층 지원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이유와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충분히 되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했다.
- 부천·원주·청주 등 7곳 1차 문화도시 지정
기존 사업과 다른 점이 잘 부각됐고 해당 지역과 사업명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이해를 도왔다. 이 외에도 지원액과 예비 문화도시에 관한 내용도 덧붙여 완성도를 높였다.
- 세계 유일 '금영 측우기' 국보 지정..."우수성 알려
대부분 문화재 관련 소식을 전할 때는 추상적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우수성을 강조하기에만 급급한데 이번 리포트 금영 측우기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 고증을 통해 준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국보 지정까지 추진할만한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병 영창제도 폐지...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국방업무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전해져서 궁금증을 덜어주었고, 특히 영창제도 폐지의 근거가 충분히 언급되어 이해를 도와주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19. 12. 31.	시청률	0.045

【총 평】

<톡톡 사이다 경제> 제181회 방송은 '2019년 한국 경제 보고서-성과와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이슈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았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경제성장률 하향, 국민소득 3만 불 및 국가경쟁력 13위, 역대 최대 고용률, 수소경제 혁신성장 정책추진, 규제 샌드박스 추진, 주 52시간 근무제, 분양가 상한제 추진, 택시 및 모빌리티 신산업 갈등 등 우리나라의 경제에 강한 영향을 끼쳤던 사건들과 관련하여 경제이슈 내용, 그리고 해당 이슈의 우리나라 영향, 향후 예상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정책톡 돈이톡에서는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의 보수 및 신축 지원을 해주는 '오래 된 주택보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주었다.

<톡톡사이다경제>는 경제정책을 쉽게 풀어준다는 기획의도를 잘 살리고 있으며, 경제정책을 가깝게 알리는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성 및 내용】

2019년 우리 경제의 성과를 살펴보면서 2020년 우리 경제를 전망해보는 기획은 매우 유익하며 효과적이었다. "2019년 한국 경제 보고서 성과와 과제"에서 다룬 분야는 총 10개로 2019년 우리 경제를 되짚어 본 시간이었다. 세계적인 추세가 저성장·저물가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며 풀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보완 할 점은 무엇인지를 현안 별로 점검해 보는 완성도 높은 구성이었다.

■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원상회복 해법

7월 1일 대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8월 7일 백색국가 한국제외, 그리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WTO 제소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특히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성장률 하향 요인과 전환점 전망은?

정부는 반도체 업종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반해 국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어 국내외 기관의 국내 경제성장률 증대폭을 바라보는데 있어 괴리가 존재

■ '국민소득 3만 불, 국가경쟁력 13위', 의미와 과제

소득부분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국가 경쟁력에서도 13위로서 선진국으로 인정할만한 원년이 2019년으로 볼 수 있다.

■ 역대 최대 고용률, 일자리 정책 성과와 과제

신규취업자수, 실업자수가 개선되어, 수치상으로 보면 고용률은 61%까지 늘어났으나 40대, 그리고 제조업 분야 등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하는 과제는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20. 1. 1.	시청률	0.000

【총 평】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67회 방송은 ‘국민 참여 플랫폼엔 국민이 없다’편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참여 플랫폼 이용률 낮고 제 기능 발휘 못한다, 혁신 제안톡 게시글 거의 없다, 열린 소통 포럼 생중계 참여자 수 저조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팩트 체크했다. <팩트체크 포인트>와 <오늘의 팩트>를 통해 언론에서 지적한 ‘열린소통포럼’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심포럼이며 전체 이용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바로잡기는 물론 관련 정책알림이 역할과 전문가 정책적 조언으로 정책방송의 정체성을 제고한 부분이 돋보였다. 또,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여 정책의 불신감과 정책수용성을 저하시키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기획된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존재이유가 새해 들어서도 절실하다.

【구성 및 내용】

정책과정에 국민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순기능을 외면한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비판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팩트체크한 기획이 적절했다. 오히려 <광화문1번가>의 유용성과 긍정적인 부분을 알리는 홍보의 계기가 마련된 점이 돋보였다.

<광화문1번가>의 필요성, 해외사례를 살펴본 구성도 정책알림이 역할 효과가 기대되며, 국민참여플랫폼은 직접민주주의 과정에서의 민의 반영이며 정책입안자 권력이 국민에 분산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 팩트체크 포인트 :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이용률 낮고 제 기능 발휘 못한다?
기사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참여플랫폼을 비교했는데, 2가지 플랫폼의 성격이 판이하므로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
기사에서는 열린소통포럼의 생중계 참여자수를 지적했는데, 열린소통포럼은 오프라인 포럼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40~100여 명이 정책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생중계에 의한 온라인 참여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진행자】

최대환 기자는 사이다 아저씨답게 보도내용에 대한 철저한 팩트체크를 이끌고 검증된 팩트를 요약 설명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제안이 정책화돼 나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생생한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여 주목도를 높였다. 가끔 예능감있는 멘트를 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의 양념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1. 2.	시청률	0.001

【총 평】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의 신년 첫 방송으로 소방관과 경찰관의 24시간을 동행취재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를 겪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먼저, 소방관의 일과를 먼저 취재하고, 경찰관의 일과를 취재했는데 각종 사건 사고 영상 및 안전 훈련, 긴급 출동 등의 에피소드를 엮어내어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각종 재난사고·범죄 현장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깊이감 있게 담아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이 사고현장을 다니며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위험한 상황을 무게감 있게 조명해 파급력 있었다.

【구성 및 내용】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활약을 소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다시 되새겨본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 소방관의 24시

도봉소방서 소방관들의 화재진압과 구조작업, 각종 훈련 상황 등 24시간을 그려내고 순직한 소방관의 사연을 소개했다.

올해 소방인력 충원 실태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사고의 감소 추이를 잠시 언급하면서 소방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이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더욱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특히, 소방관의 화재감식 현장, 전통재래시장에서의 소방훈련, 차량 밑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는 모의 훈련 등을 보여주고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 관심도를 높였다. 24시간 대기하며 업무 교대 시 개인장비와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은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철저함이 담겨 있어 신뢰도 높였다.

■ 경찰관의 24시

강동경찰서 경찰관의 각종 사건 사고 관련 출동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동행센터를 소개했다.

절도 사건부터 단순 착오 사건 등 여러 종류의 출동 사례가 소개되면서 참으로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경찰관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취자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출동하는 빈도가 많다는 사실을 조명해 경찰의 업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음을 인지하게 했다. 경찰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기 위해 '마음동행센터'를 운영하며 임상심리사가 상담과 문제점을 파악해 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